

중판발행 강세에 힘입은 양적 성장

통계로 본 1990년의 출판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4만 1712종의 책을 발행했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3천종에 불과했던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해 79년에 1만종을 넘고 86년에 2만종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다시 두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신간도서의 증가는 거의 없었고 중판 이상의 도서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참고서류가 발행종수·부수의 대부분 차지

분야별로 보면 아동(20.9%) 문학(19%) 학습참고서(14.2%) 사회과학(11.4%)의 순으로 신간을 많이 냈고 총류(1.2%) 순수과학(1.5%) 역사(2.5%) 철학(2.6%) 등에서 여전히 신간이 적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서 학습참고서가 26.1%의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고, 예술(17%) 문학(13.5%) 아동(9.1%) 등의 분야도 지난 같은 기간 보다 늘어났다. 이 가운데 순수과학 분야가 전년도에 비해 13.1%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이른바 '알기 쉬운...' 시리즈 등으로 인한 과학도서 대중화에 힘입은 결과로서 특이할 만하다.

신간 발행종수에 있어 학습참고서를 빼면 문학류가 단연 으뜸이다. 구체적인 장르별 발행종수를 알아보면 총발행수(3646종) 가운데 소설(1795종)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시(648종) 수필(477종) 등의 순이며, 희곡(39종)의 발행량이 가장 낮았다. 89년에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던 시분야의 열기가 작년에는 다소 가라앉아 5% 감소했고, 대신 수필류가 또다시 급격한 증가추세(35.1%)를 보인 것이

1990년 출판 통계

기간: 1990. 1. 1~12. 31

구분 관차별 분야	발행종수(종)				발행부수(부)		평균 발행부수 (부)	평균 정가 (원)	평균 면수 (면)
	초판	중판	계	전년비 성장율(%)	계	전년비 성장율(%)			
총류	197	295	492	△36.4	1,679,870	△ 41.9	3,414	10,939	356
철학	621	460	1,081	2.6	3,778,420	120.0	3,495	5,089	294
종교	1,563	2,009	3,572	7.2	12,032,945	△ 16.2	3,368	3,791	308
사회과학	3,142	1,585	4,727	2.8	7,858,687	△ 13.2	1,662	8,339	393
순수과학	328	281	609	13.1	1,106,680	△ 9.4	1,817	9,249	329
기술과학	1,761	1,555	3,316	△ 1.9	4,127,028	△ 10.8	1,244	8,152	352
예술	983	1,497	2,480	17.7	7,206,027	32.6	2,905	8,574	193
어학	882	960	1,842	△ 6.7	6,362,500	10.8	3,454	8,313	350
문학	3,646	4,263	7,909	16.0	19,486,684	41.1	2,463	3,926	308
역사	657	388	1,045	△33.4	1,990,883	△ 20.4	1,905	11,059	318
학습참고서	4,779	1,160	5,939	25.4	119,351,884	25.1	20,096	5,159	145
아동	2,344	6,356	8,700	9.0	56,857,729	40.7	6,535	4,676	112
계	20,903	20,809	41,712	7.4	241,839,337	22.6	5,797	5,932	253

(주) 1. 문화부 납본에 의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집계임. 2. 만화, 정기간행물 등은 제외됨. 3. △표는 마이너스 성장률임.

특징적이다.

또한 작년의 총발행부수는 2억 4천184만부 로 22.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80년의 6천460만부보다 무려 374%나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발행부수에서도 중판 도서발행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 초판은 6.1% 증가한 반면 중판은 48.7%의 성장률을 보여 대조적이 었다. 중판의 발행부수가 높다는 것은 한편으 로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반응을 얻고 있는 책 들이 늘어났다는 현상을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분야별로는 예년과 다름없이 학습참고서

(49.4%)와 아동도서(23.5%)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 더군다 나 초판 발행량에서는 학습참고서가 70.5%를 차지, 일반도서의 경우 신간발행량이 극히 적은 심각한 출판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철학분야의 발행부수가 120%나 늘어나 주목되는데, 이는 작년에 '인생지침'의 주제를 다룬 유사한 책들이 상당수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경향을 말해준다. 이밖에 아동(39.8%) 문학(38.7%) 예술(32.4%) 등의 분야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다.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5979부로 나타나 5

천부 대를 넘어선 89년보다 14% 증가했고, 80년의 3079부에 비해 1.5배 늘어났다. 그러나 2만부 이상을 펴내는 학습참고서와 아동도서(6603종)를 제외하면 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역사물이 1500부 안팎으로 일반도서는 평균 2400부 정도를 발행한 셈이다. 평균 발행부수가 낮으면 그만큼 권당 제작단가를 높이기 마련이어서 책값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책값은 비교적 안정, 책부피는 줄어들어

1종당 평균 책값은 5932원꼴로 전년(5346원)에 비해 11.7%, 80년(3504원)보다는 41%

우리말 분류사전

전 2권

엮은이 남영신

제1권 이름씨편

제2권 풀이말편

(부록: 북한에서 쓰이는 우리말)

우리말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토박이말 35,000여개를 각 분야별로 쓰임새에 따라 분류하여 토박이말이 생활어로서 대중화 됨은 물론 학술용어·전문어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이 사전에는 토박이말 가운데 이름씨(명사) 20,000개와 풀이말(동사·형용사) 15,000개가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다.
- 중요한 울림말에는 한국문학작품에서 골라낸 멋진 유행어와 함께 작가와 작품이 수록되었다.
- 북한의 토박이말을 수록하여 이질화 되어 가는 실상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였다.

4×6배판 각권 36,000원

우리말 맞춤법·표준어 사전

엮은이 남영신

신국판 760쪽

값 18,000원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한번쯤 혼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이 사전은 맞춤법에 틀리는 낱말들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써서는 안되는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어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잘못 쓰일만한 외래어도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고쳐쓰도록 하였으며, 흔히 잘못을 범하게 되는 띄어쓰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록으로 최근 발표된 '표준어 모음'을 비롯하여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고 해설편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맞춤법과 표준어 문제를 다루고 있어 사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출판 **한강문화사** 722-7311
723-1188

컴퓨터 시대의 새로운 길잡이

「만화로 보는 컴퓨터의 세계」

컴퓨터를 모르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본격적인 컴퓨터 의무 교육시대에 맞춰 출판된 「만화로 보는 컴퓨터의 세계」는 컴퓨터 조작에 대한 이해를 흥미롭게 엮어 이 분야 교재에서 돋보이는 책이다.

모두 네권으로 엮어진 이 시리즈의 1권 「제 친구 컴퓨터를 소개합니다」는 1946년 최초의 컴퓨터인 에니악을 시작으로 한 컴퓨터의 발달단계와 현재 활용되는 컴퓨터의 이용 범위와 구성 및 작동원리 등 기본지식을 다룬다. 2권 「컴퓨터와 친해지고 싶으세요?」는 컴퓨터의 작동순서와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소개한다. 컴퓨터를 작동시켜 파일을 디스켓에 저장하거나 지울 때 혹은 복사할 때,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중계역할을 맡고 있는 MS-DOS의 기본 명령어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한 3권 「MS-DOS는 꼭 알아야죠?」와 다양한 BASIC언어 가운데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GW-BASIC의 명령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4권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는 정확한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네권은 각기 다른 주제를 지니고 있어 필요한 책만 읽어도 우리가 없게 엮여졌는데, 이삼스런 주인공들에 의한 문답식의 구성은



컴퓨터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첨부된 교육용 컴퓨터 디스켓 「TUTOR」 2장은 이 시리즈가 가장 내세우는 장점. TUTOR 1은 한글과 영문타자를 단계별로 익히는 과정을 담았고, TUTOR 2는 낱말맞추기 게임을 통해 MS-DOS와 GW-BASIC명령어 학습을 평가할 수 있도록 꾸몄다.

컴퓨터에 대한 컴플렉스나 거부감을 없애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길잡이로서 유용한 이 시리즈는, 이원부교수(동국대 정보관리학)가 내용을 꾸민고 최달수씨가 그림을 맡았다.

동아출판사 / B5변형 / 112면 내외 / 28,000원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4만 1712종의 책을 발행했다. 이는 70년대 후반부터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여 '86년에 2만종을 돌파한 지 4년만에 다시 두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신간도서의 증가는 거의 없었고 증판 이상의 도서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나 올랐다. 최근 들어 인쇄비나 종이값 등 전반적인 제작비의 앙등으로 압박을 받긴 했으나 다른 상품에 비한다면 아직 책값은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예컨대 300면 정도의 교양도서일 경우, 일본은 1500엔(약 7500원) 미국은 11~12달러(약 8000원) 영국은 5~6파운드(약 8000원) 가량으로 우리나라의 책값은 비교적 싼 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권당 평균 면수는 253면으로 89년(257면)보다 오히려 5.3% 줄어들어 점점 책의 부피가 작아지고 있음을 보였다. 가장 두꺼운 책은 사회과학류(392면)이고 아동도서(112면) 참고서(145면) 예술(193면) 서적이 얇은 편이었다.

번역서는 작년 한해 동안 모두 3383종이 나와 8.7%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87년 저작권법 발효 이후 급격히 줄어든 번역물의 계약출판이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출판인의 인식이 확대됨과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국내의 필자 부족과 좋은 원고의 고갈상태 등의 요인으로 출판사들이 해외 저작의 번역물 출판에 눈을 돌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회복세에 들어선 번역물 계약출판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발행량(16, 124종)에서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1% 정도.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급작히 일반인의 관심을 모았던 과학분야의 번역도서가 77.7%의 증가를 보였고, 철학분야 역시 31.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발행한 책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철학(36.2%)이었고, 종교(35.8%)와 문학(32.6%)도 번역물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어학(9.6%)과 역사(10.1%) 사회과학(12.5%) 등에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전국의 출판사 수는 90년 11월말 현재 5679개사로 집계됐는데, 89년(4763개)보다 20% 정도 늘어난 것이다. 87년 출판활성화 조치에 의해 신규등록 자유화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이래 꾸준하게 늘어났지만, 실질 출판활동에선 어떻게 가시화되고 있는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국내최초공개!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농부(마이아)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독자 여러분 신비한 UFO 비행음을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들을수) 지금 즉시 들어 보세요. 있습니다.

전자식 전화기로 152번을 누르면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시 8159번을 누르시면 우주여인(셈야제)의 UFO 비행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02) 152번을 누르세요.>
●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아)와 우주여인(셈야제) 일본 N. TV에서 농부(마이아)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 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 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 우주여인(셈야제)와 농부(마이아) 이야기—
- 주요목차 ●
 - 농부(마이아사건)의 충격 ●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 현재 성경은 위서(僞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 바울 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 예수 탄생의 비밀 ● IBM보오겔 박사의 증언 ●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 오다가 오시아 엮음 ● 정우인 옮김 ● 사진제공 농부 마이아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 신국판/242면/값3,500원

도서주문 진영서적 : (02) 272-5871
을지서적 : (02) 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 (02) 549-6817
F A X : (02) 549-6816